

어린이 책꽂이

▲KBS 대왕세종=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끌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한 대왕세종의 면모와 업적을 그린 학습 만화. 장영실, 김종서 등 세종대왕을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흑부리 할아버지=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를 요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췄다. 육십쟁이 흑부리 영감이 팽바닥에 닿을 만큼 길게 늘어난 코를 갖게 된 이야기가 재미있게 펼쳐진다.

▲신데렐라=못된 의붓 어머니와 언니들 밑에서 온갖 갖은 일을 시달리던 신데렐라가 결국 왕자님을 만나 사랑과 행복을 찾게 된다는 즐거운 이야기. 화방바자, 대모 요정, 유리 구두 등 환상적인 분위기의 그림이 읽는 재미를 더한다.

▲수학탐정 매키와 누팡의 대결=수학탐정 매키와 수학도둑 누팡이 펼치는 아슬아슬한 대결을 통해 수학적 이해력과 논리력, 창의력을 배울 수 있다.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변형된 모습 등 숨겨진 도형의 비밀이 낱알이 드러난다.

▲화가와 호루라기=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이산의 아픔을 겪는 가족 이야기를 그린 동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도파르파르하게 살아남은 어린이들의 꿈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유명 작가들의 게으른 독서 철학 소개

읽지 않은 책에 대해... 피에르 바야르 지음

영화 '달콤 살벌한 여인'(2006년)의 주인공 미니(최강희 분)는 애인 친구들 앞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읽지 못해 창피를 당한다. 과연 도스토예프스키의 책을 읽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인가? 이 질문에 대해 파리 8대학 프랑스문학 교수인 피에르 바야르는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을 통해 '아니다'고 대답한다.

거나 혹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책의 내용을 당당히 말하는 법에 대해 설명한다. 책을 읽지 않고도 책에 대해 알은채하기 위해서는 '왜 책을 읽지 않아야 하는지'를 먼저 깨닫아야 한다. 저자는 오스카 와일드, 폴 발레리 등 유명 작가들의 게으른 독서 철학을 소개한다.



않는다. 너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오스카 와일드 "나는 수년 전에 언뜻 그의 작품을 엿보았을 뿐이다. 내가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글로 적힐 가치도 거의 없는, 읽을만한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다"-폴 발레리 오스카 와일드와 폴 발레리는 남의 작품에 대해 평가하면서 전혀 읽지 않거나 대충 훑어봤지만 뛰어난 비평문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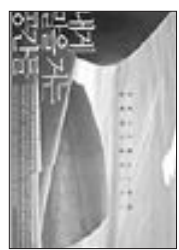
저자는 단순히 책의 내용만을 기억하는 독자가 아니라 삶과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광주 충장서점에서 시민들이 책을 고르고 있는 모습.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이처럼 읽지도 않은 책에 대해 말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은 '책이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유동적인 오브제(object)'(195쪽)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책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고, 책을 통해 자기 얘기를 만들어 냈다고 소개한다. 일부 독자는 책에 빠져 자신의 세계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문화재 전문가가 말하는 건축 이야기

내게 말을 거는... 임지혜 지음

독일 뮌헨에 살고 있는 문화재 건물 전문가 임지혜가 건축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내게 말을 거는 공간들'을 펴냈다. 1부 '집 이야기'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가꾸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고 독일인 남편, 아들과 함께 나는 환경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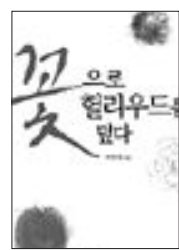


/김미근기자 kemik@kwangju.co.kr

할리우드 사고계의 파티문화 엿보기

꽃으로 할리우드를... 캐빈 리 지음

플로리스트나 파티 플래너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시작해야 할까.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의 정치자금 후원회를 비롯해 브래드 피트의 결혼식, 오프라 윈프리의 점심 초대파티 등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파티를 꾸민 사람은 바로 캐빈 리. 명실상부한 할리우드 최고의 플로리스트인 그는 꽃 배달부터 시작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호사카 유자의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

조선의 임금 선조(宣祖)는 16세기 후반에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문은 커녕 한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는 정말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흔히 조선은 선비, 일본은 사무라이라고 하는데 위의 일화는 두 문화의 차이를 보여준다. 조선의 임금이 공부하는 임금 즉 학자군주였다면, 일본의 경우는 힘만 있으면 누구나 패자(覇者)가 될 수 있었다. 사무라이는 무사 중에서도 상급 무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과천선' 日 사무라이들



고 생각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차이가 있다면, 선비는 사약을 받았고 무사는 활약을 한 것일까? 조선의 선비는 불교국가인 고려가 망하고 성리학에 바탕을 둔 조선이 개국을 하면서 생겨났다. 그들은 도덕성과 수신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성인(聖人)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다.

반면 무사계급은 자신들의 토지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농민이나 지방의 수령으로 파견된 황족이나 귀족이 지방에 눌러 앉으면서 생겼다. 공자나 주자를 경전으로 삼은 선비와 달리 사무라이의 사상은 주로 손자병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준비된 전쟁을 하라'던 손자의 가르침은 사무라이로 하여금 항상 자기 영지의 농업과 산업을 돌보게 했다.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인 저자 호사카 유자는 '조선의 선비와 일본의 사무라이'(김영사)를 통해 사무라이를 무슨 대단한 '도(道)'로 여기는 일본인의 의식을 공박한다. 원래 옛 무사의 모습에서는, 무사도의 핵심이라고 설명되는 주군에 대한 윤리적 충성 의식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정일(소설가)

Real estate advertisement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properties in various areas like Daegu, Gwangju, and Seoul. Listings include details on location, size, price, and features. Advertisers include '대인동삼일부동산', '금보부동산건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지공인중개사',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nd '한일지도판매(주)'. The ad also features a section for '2008 최신 합본(광주·대구·부산·경북·충청·전남) 지지도 책 판매중'.